



이번호 지면

최고위정책과정 제65기 수료식 | 2면

지난 1월 31일(금) 오후 6시 30분, 본교 정책대학원 제65기 최고위 정책 수료식이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제65기 최고위 과정 수료식에는 이병천 총교무회장, 류관석 사무총장, 정책대학원장 김태일 교수, 정책대학원부원장 정한 교수 등의 내빈이 참석하여 제65기 최고위 과정 원우들의 수료식 자리를 빛냈다. 사회는 정책대학원 행정실의 송익현 과장이 맡았다.

최고위정책과정 제66기 개강 | 3면

지난 4월 10일(금) 오후 7시 정경관 618호 최고위과정실에서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제66기의 첫 수업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미뤄진 수업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원우들이 참석해 학구열을 불태웠다. 첫 강의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및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겸 소장직을 맡고 있는 김창엽 강사가 맡아 '한국 사회와 보건의료체제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정책대학원 33주년 정책인의 밤 개최 | 8-9면

지난 12월 20일(금) 저녁 6시, 본교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제59대 총학생회가 주최하고 정책대학원 교우회가 후원한 '정책인의 밤' 행사가 열렸다. 올해는 본교 정책대학원이 33주년이 되는 해로, 본교 수당삼양 패컬티하우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정책인의 밤' 행사에는 제 59대 남기환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선배 원우들과 석사과정 제 62기 원우, 정책대학원 교수님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어우러졌다.

- 社 告 -

정책신문 86호부터는 학기별 1회(4월, 10월) 발행됩니다.

북한 경제의 현황과 전망

김병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세계적으로 이 정도 격차가 나는 양국 간의 매끄러운 통합 및 통일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면에서 우려 되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북한이 간판에는 사회주의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 경제의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시장과 무역 등 자본주의적 시스템이다. 북한의 고위 공직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가에서 주는 봉급은 가족 생활비의 1/40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실제로 나머지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시장활동에서 나오는 자금이다. 소련 말기 가게 총소득 중 비공식소득의 비중이 20% 정도였던 반면 현재 북한은 7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북한 주민은 어떻게 소득을 창출할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일반 주민은 시장활동과 밀수를 통해서, 중간 관료는 뇌물과 간접적 시장활동을 통해 돈을 벌고 김정연과 권력층은 무역과 각종 외화벌이로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흔히 북한이 폐쇄 경제사회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공식 무역과 비공식 밀수를 합칠 경우 북한은 남한만큼이나 무역 의존도가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북정책을 구상할 때도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라는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비핵화는 후세를 위해 해서라도 이번 세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제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제재를 완화한다면 북한의 돌발행동을 줄일 수 있겠지만, 최종적 목표인 비핵화 가능성은 더욱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스물다발을 원하지만 미국은 빅딜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미국도 빅딜이 아닌 스물다발을 통해서라도 협상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북한이 부분적인 비핵화만 하려 한다면 협상이 성공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독재자의 사망 혹은 교체 외에는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의 개혁은 없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한 사회주의 내에서의 개혁 외에 자본주의로의 개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현재 북한에서 가장 강한 당은 장마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 전환을 위해 독재자가 시장에 의해 떠밀려서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진 통일은 위험성이 너무 높다. 혹자는 독일도 성공한 통일을 우리가 왜 못하겠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히 인구비율과 일인당소득비율을 비교하더라도 남북 통일은 독일 통일과 산술적으로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서독과 동독의 인구비율이 4:1이었지만 남북의 인구비율은 2:1이다. 소득의 차이도 훨씬 작았기 때문에 서독이 동독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에 그렇게 할 경우보다 훨씬 수월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 알 필요가 있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0학년도 후기 정책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정책대학원 소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은 리더십과 멤버십, 지성과 야성의 균형을 통해 공동체의 삶에 기여하는 정책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1986에 설립 되어 30여년간 수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본 대학원은 공공성의 배양(公共善의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동체 구성원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 전문지식의 심화(변화하는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의 습득과 그 지식의 정책적 실현을 통해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제고하는 교육),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의 배양(복잡한 사회현상의 진단에 필요한 융합적 사회과학 지식 함양과 이에 기반을 둔 공공문제의 창의적 해결능력과 민주적 리더로서의 소양을 제고하는 교육)을 교육목표로 삼고 인재 양성에 임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집분야 및 학과 (석사학위과정, 야간)

- 1) 정치계열
 - 국제관계학과 : 외교, 국방, 통일 분야의 정책전문가 양성
 - 글로벌정치학과 : 세계 여러나라의 정치제도, 정치형태, 정치경제 등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지역과 국가, 나아가 국제사회를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를 양성
- 2) 경제계열
 - 경제정책학과 : 경제실무, 경제정책 전문가 양성
 - 조세재정학과 : 재정, 세정에 관한 전문가와 실무자 양성
 - 국토경제학과 : 도시 및 국토개발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양성
- 3) 행정계열
 - 도시및지방행정학과 : 도시, 지방행정 및 지역개발 실무자 심화 교육과 공공컨설팅 전문가 양성
 - 감사행정학과 : 감사행정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 양성
 - 사회안전행정학과 :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협의 관리 능력, 사회안전정책의 평가와 개발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
- 4) 통계 계열
 - 데이터통계학과 : 통계분석 전문가와 실무자 양성

응시자격

-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0년 8월 학사 학위 취득 예정자
- 2)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3)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 4) 4년제 대학에서 다른 분야를 전공한 자도 응사할 수 있음

구비서류

- 1) 제출서류 목록 체크리스트(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2)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3)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파일(입학원서 첨부용 및 e-mail 제출용) 1매
- 4)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5)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본대학원 소정양식) 1부
- 7)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8) 학력조회확인서 및 아포스티유(Apostille)(해당자에 한함) 1부

전형일자

- 1) 원서접수 : 2020년 4월 6일(월) ~ 4월 22일(수)
- 2) 면접 일시 및 장소 : 2020년 5월 6일(수) 오후 7시 (면접장소는 추후 공지)
- 3) 합격자 발표 : 2020년 6월 5일(금) 오후 3시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문의사항

- ※ 정책대학원 행정실 : 02-3290-1381~2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책대학원 홈페이지(<https://kopolicy.korea.ac.kr>) 입시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정책대학원장 수료 식사



이병천 총고정회장 축하



남정규 제65기 최고위과정 회장 답사



발전기금 기부증서 전달식



최고위정책과정 제65기 수료식 후 단체 기념사진 촬영

최고위정책과정 제65기 수료식

6개월의 인연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을 다져

지난 1월 31일(금) 오후 6시 30분, 본교 정책대학원 제65기 최고위 정책 수료식이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제65기 최고위 과정 수료식에는 이병천 총교우회장, 류관석 사무총장, 정책대학원장 김태일 교수, 정책대학원위원장 정한 교수 등의 내빈이 참석하여 제65기 최고위 과정 원우들의 수료식 자리를 빛냈다. 사회는 정책대학원 행정실의 송익현 과장이 맡았다.

행사의 식순은 △개회사 △국민의례 △내빈 소개 △수료증서 및 상패 수여 △발전기금 기부증서 전달 △최고위 정책과정 총교우회 감사패 수여 △정책대학원장 식사 △최고위정책과정 총교우회장 축하 △수료생대표 답사 △폐회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 식이 끝난 후에는 본교 인촌기념관 1층 귀빈식당에서 준비된 만찬을 즐기

며 회포를 풀며 건배를 제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태일 정책대학원장은 “첫 임기에 걱정되고 부담스러웠으나 여러분들 덕분에 한 학기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며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헌신적으로 학교생활에 임해주셔서 감사하다. 학교생활을 통해 다져진 인연이 수료식 이후에도 이어지길 바란다.”며 식사를 마쳤다.

이어 이병천 총고정회장은 “찬 겨울을 지나 희망찬 입춘을 앞둔 시점에 질병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다.”면서 “6개월간 훌륭한 지도아래 서로 알아가며 견문을 넓히고 친교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장이 형성되어 형제자매가 된 것 같아 기쁘다. 수료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고정회 새 여정에 동참해 고대 발전에 이바지 해주

길 바란다.”며 축사를 바쳤다.

이에 남정규 65기 회장은 “참석해 주신 선배님들에게 감사하고 모두 건강히 수료식을 할 수 있어 축하드린다.”며 “부족한 점이 많은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우 여러분의 많은 도움으로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좋은 점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앞으로 우리 우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며 답사를 마쳤다.

답사 이후 정책대학원 행정실 송익현 과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수료식을 마무리 지었다. 수료식 이후 최고위정책과정 65기 원우들과 내빈들은 기념사진을 촬영하였고 이 후 만찬이 이뤄졌다.



- 안암병원 1577-0083
- 구로병원 1577-9966
- 안산병원 1577-7516

[고려대 안암·구로·안산병원의 의료 인프라]

5,500 여명의 세심한 서비스

2,577 개의 첨단 병상

33만m²의 갤러리

처음 보는 병원인데,
누구세요?



고려대학교의료원
KOREA UNIVERSITY MEDICAL CENTER



최고위정책과정 제66기 단체사진

최고위정책과정 제66기 첫 수업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문답이 오가며 교수-학습자간 활발한 의사소통 이뤄져

지난 4월 10일(금) 오후 7시 정경관 618호 최고위과정실에서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제66기의 첫 수업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미뤄진 수업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원우들이 참석해 학구열을 불태웠다. 특별히 이번 최고위정책과정 제66기는 별도의 입학식을 진행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책상에는 한 명씩만 앉도록 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듣는 것을 권장하였으며 강의실 앞에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하였다.

첫 강의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및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겸 소장직을 맡고 있는 김창엽 강사가 맡아 "한국 사회와 보건의료체계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수업은 교수자의 진행형 강의 대신 학습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 마스크의 효과 여부에 대해 "마스크는 바이러스의 전파력

을 약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마스크를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착용하기 때문에 유행 초기 마스크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지만 본인이 옮기는 것을 방지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쓰는 것은 효과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마스크를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코로나-19 치유 이후에 재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검사에는 위양성과 위음성이라는 것이 있다. 위양성은 본래 음성인데 양성으로, 위음성은 양성인데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 둘은 어느 검사에나 존재하는데 병의 특성에 따라 비율을 조절한다. 코로나의 경우 위양성은 허용 가능하지만, 위음성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 우

리나라의 검사법은 유전자를 찾는 방법이다. 코로나는 바이러스가 사멸해도 유전자는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불확실성이 많아 단정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현재 상태 이후 국가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의 운영 시 평시 운영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으며 치료제의 경우 임상개발 등의 이유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개발 이후 치료제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으로 제약회사에서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현 시점을 분석하였다.

수업이 마친 뒤 김태일 정책대학원장과 정환 정책대학부원장의 소개인사가 있었고 각 원우가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일 정책대학원장 소개



정환 정책대학부원장 소개



김창엽 교수 강의진행



최고위정책과정 제66기 첫 수업 수강



SEOUL
PLAZA
HOTEL

고려프라자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29-26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내] Tel 02 · 925 · 2310~1 Fax 02 · 924 · 7134 www.seoulplaza.co.kr
교우회관은 서울프라자호텔의 웨딩 코디네이터가 상주하여 전문적인 호텔식 웨딩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프라자호텔 외식사업부에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별한 모임을 위한 교우회관”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 위치한
호텔식 연회장을 만나보십시오.

세련된 인테리어와 편안함을 갖춘 연회홀,
최상의 서비스와 음식,
교우회관에서는 호텔식 연회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결혼식, 가족행사(돌, 회갑, 칠순), 세미나,
출판회, 기념식, 교우행사
- ▶하계(7~8월) 및 연간 주중 결혼식에는 식료 10%,
음료/주류 5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안암홀



석담홀



프라자홀



최고위정책과정 65기 가평 국내세미나

1박 2일간의 최고위과정 국내세미나 경기도 가평에서 진행해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원우 간 즐겁고 따뜻한 교류의 장 만들어

탈페르소나, 반전, 열정, 세렌디피티 위의 네 단어가 기억에 남는다. 1박 2일, 그러나 만 24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느꼈던 희열과 교감의 시간들이 제법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은, 참석한 25인의 원우들 개개인의 면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어서일까.

2019년 10월 25~26일, 고대 정책대학원 원우 25명이 국내세미나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경기도 가평으로 향했다. 멀리 강원도, 인천, 나주, 창원 등 각 지역에서 세미나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모였다.

첫 날, 오후 2시에 우리는 가평과 춘천의 경계를 짓는 북한강변에 자리 잡은 가평의 그림 같은 별장에 집결했다. 별장의 소유자는 정책대학원 65기 원우이신 어민규 대표님이다. 도저히 건축이 불가능 할 것 같은 강변의 절벽에 어떤 공법과 기술을 동원

했는지 가늠할 수 없는 수준으로 멋진 별장을 지어둔 터라 모든 원우님들이 어민규 원우님의 아이디어에 하나 같이 감짝 놀랐다. 감사하게도 골디락스 같은 기운에 바람도 불지 않아 너무 좋은 날씨가 허락되어 편안한 복장으로 일정들을 즐길 수 있었고, 야간에 야외에서 바비큐 파티를 할 때에도 전혀 춥지 않았다.

첫 일정은 소형 유람선을 타고 별장에서 북한강을 따라 북쪽으로 약 1km 지점에 있는 남이섬 주변을 천천히 일주하며, 총 거리 5km를 약 30분에 걸쳐 유람을 할 수 있었다. 크림색 소파를 원형으로 둘러놓은 북유럽풍의 인테리어로 무장한 소형 보트가 원우님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었다. 최대 승선인원이 10명이어서 회차를 나누어 진행했으며, 모든 탑승자가 조타석에 앉아 사진도 찍고 평소 볼 수 없는 방향과 거리

에서 남이섬과 북한강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가평의 신선한 공기는 덤으로 얻었으며 숨을 들이쉬자 폐부 깊은 곳의 세포들이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두 번째 일정은 고대 정책대학원 김태일 원장님의 예산안 강의였다. 원장님은 흠바 의자에 앉아 편안한 토크쇼처럼 강의는 진행하셨고, 국가 기획재정에 관한 모든 질문을 받으시며 딱딱하지 않은 강의로 마무리하셨다.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원우님들의 1분 스피치로 가벼운 소개시간을 가졌다. 첫 날 저녁은 분당 수원왕갈비에서 직접 공수해 온 쇠고기와 양념쇠고기를 고급 그릴에 구워 채소, 과일, 와인, 전통주를 곁들여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겼다.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연간 75억원! 고대인들이 전기, 가스, 물을 쓰는 데 치르는 비용입니다.
빈 강의실에 전등을 켜놓진 않았는지, 사용하지 않는 기기를 켜놓진 않았는지-
조금만 신경 쓰고 확인해 본다면 많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돌아보는 습관, 고대를 사랑하는 당신이라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학교사랑!

<고대를 사랑하는 12가지 방법>

1. 빈 강의실, 아무도 없는 동아리방 전등은 꺼주세요.
2. 냉·난방기 가동할 땐, 창문이 닫혀있나 확인 필수!
3. 너무 춥거나 덥지 않게, 실내 온도는 적당히!
4. 햇살 좋잖아요! 겨울엔 차광커튼을 활짝 열어주세요.
5. 개인 냉·난방기 사용은 자제! 사용해도 효율 높은 기기로!
6.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는 가동을 멈춰 주세요.
7. 365일 꽃혀있는 플러그? 사용하지 않을 땐 뽑아 주세요.
8. 컴퓨터는 절전 모드로 설정해 주는 센스, 아시죠?
9. Peak Time(오전11시~오후2시)엔 전기사용을 줄여 주세요.
10. 수도꼭지는 꼭 잠가 주세요. 돌아보고 확인해 보는 여유!
11. 운동 하고 에너지 절약하고! 가까운 층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12. 학교를 내 집처럼 여긴다면 에너지 절약 실천, 어렵지 않겠죠?



고려대학교



저녁 식사 후 우리 또 새로운 경험을 했다. 저녁 8시부터 수상에 띄워진 철제 2층 방갈로에 올라가 캠프파이어를 진행한다. 물위에 떠 있는 구조물에서 캠프파이어를 한다고 상상해보라. 그 것 만으로도 즐겁지 않겠는가. 그 위에서 초대가수이자, 진행자로 토크싱어 신이준님을 모셨고, 레크레이션 강사 시절의 실력을 조금씩 선보이며 통기타 하나로 원우들을 추억의 음악에 빠져 들게 했다. 10월에 생일을 맞이하는 원우 세 분이 있어, 축하의 노래와 케익을 전하며 불꽃놀이를 하였고 이후 별장 1층에 있는 다목적공간에서 분위기를 이어갔다. 사실이 글의 서두에 네 단어를 언급했던 이유는 이 시간에 모두 나왔다. 공공기관에서 오신 원우님들 비율이 그 어느 기수보다 많다는 얘기에 차분한 분위기에서 세미나를 진행할 것이란 예상은 완전 빗나갔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열정도 이런 열정이 없었다. 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끼의 발산과 나이를 잊은 젊음의 몸짓, 추억의 음악에 몸을 과감히 맡기는 그들을 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입학식부터 세 번의 강의를 듣는 동안 조금도 감지할 수 없었던 원우들의 숨겨진 내면과 진심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탈페르소나, 반전, 열정을 언급했다. 65기를

구성하는 모든 원우들의 입학까지의 과정과 사정은 개인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결국 우리 한 자리에 모였고 인연이 되었다. 너 무나 놀라운 재능과 겸손으로 무장한 원우님들이 많아서 65기를 만난 것 자체를 우연히 찾아온 행운과 같은 세렌디피티라고 표현하고 싶었다.

둘째 날엔 오전 이른 시간부터 카약을 즐기는 분들과, 소형 유람선으로 남이섬을 구경하시는 분들, 아침 식사 준비에 봉사하시는 분들로 인해 청평호 강가의 고요함을 깨우고 분주하게 시작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어울리고 생각을 나눈 인연이란 것이 참 대단한 것 같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보다 확실히 다들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동기들 표정에서 보인다.

가평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국내세미나는 65기 후원하는 상남자 남정규 회장을 필두로 회장단과 집행부가 꾸러지기 전부터 헌신해온 김찬종 사무총장과 펜션의 주인장인 어민규 원우를 비롯하여, 참석률 제고를 위해 원우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까지 하며 독려해준 사무차장 오정연 원우, 모든 일에 자발적 헌신으로 손발처럼 움직여주는 사무차장 서진영 원우, 둘째 날 새벽같이 떠나야 할 일정이 있었음에도 밤늦

은 시간까지 주방에서 손에 물이 마를 시간이 없었던 이영아 원우, 참석해주신 모든 원우님들의 자율적 봉사로 인해 더욱 빛나는 행사가 되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양육하는 고대정책대학원의 한 가족으로서 김태일 원장님, 정환 부원장님, 양군주 부장님, 송익현 과장님, 김지현 최고위 담당자님이 함께 하고 협조함으로 더욱 알차고 성공적인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었기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2020년 1월에 있을 해외세미나에서도 우리의 열정이 계속되길 바란다.



김성렬(최고위 제65기, 엑스페론 CFO)

정책신문 광고 게재 안내

고려대학교 정책신문은 1991년 창간되어 연간 2회 발행하고 있으며 대학원 행사와 원우들의 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적 사고와 효과적인 집행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원들의 학술적 토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신문은 구독료와 광고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정책신문에 원우 및 교우님들의 개인 및 기업광고를 게재해 주시면 정책신문 운영과 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광고 게재 문의 : ☎ 02-3290-1380 / e-mail : gre005@korea.ac.kr



석사과정 베트남 해외세미나(제59대 총학생회)

4박 5일간의 석사과정 해외세미나 베트남 나트랑에서 진행
서로 다른 학과가 함께 어우러져 동질감을 느낀 뜻 깊은 시간 보내

세미나의 처음은 나트랑 해변 산책으로 시작했다. 하얀 모래사장 때문에 화이트 비치라고 불리는 나트랑 해변은 우리나라 해운대처럼 현대식 호텔이 해변과 길 하나를 두고 바로 있어서 언제든지 해변을 즐길 수 있었다. 에메랄드색의 바다에서 코코넛을 바로 잘라서 마시니 여기가 베트남이라는 것이 실감이 났다.

해변을 산책하기도 바다에 몸을 담그기도 하면서 나트랑 해변을 즐긴 우리들은 점심을 먹고 현지의 변화를 즐겼다. 나트랑은 떠오르는 관광지라 우리에게도 유명한 카페들이 많았는데 그 중 핫플레이스인 콩카페에 들렀다. 베트남은 커피로 유명한데 특히 커피에 연유를 넣어 먹는 방식으로 유명하다. 콩카페의 코코넛커피는 거기에

코코넛까지 넣어서 달달하면서 고소한 맛이 사람들의 입맛을 잡아서 국내에도 프렌차이즈가 생기는 인기를 누렸다. 그런 커피를 베트남 현지에서 먹으니 그 맛이 더욱 각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해외세미나에 온 목적인 김태일 원장님과 김범수 교수님의 특별 강의를 시작되었다.

김태일 원장님께서서는 당시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소득주도 성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셨고

김범수 교수님께서서는 "How People Vote in Contest : New Finding from Immortal Songs 2 (사람들은 경연에서 어떻게 투표하는가 : 불후의 명곡2를 통해 찾아보자)"라는 주제로 우리

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연과 면접에서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해주셨다.

정책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원장님과 주임교수님의 강의를 듣기가 어려웠는데 해외세미나를 통해 "명품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두번째 날이 밝았다. 전 날에는 나트랑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이라 느끼지 못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연 순간 바로 바다가 보여서 상쾌함과 여행을 왔다는 기분이 확 다가왔다.

두번째 날의 일정은 바로 훈문섬 호핑이었다. 베트남 바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훈문섬 호핑은 특히나 특별했다.

최고의 정책인이 되고 싶으면 정책대학원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은 학문적 수준, 졸업생의 활약상, 학생활동의 진취성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대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1905년 고려대학교의 개교와 시대적 변화에 적응·발전해 온 뿌리깊은 전통의 정책대학원입니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우선 고속열을 타고 세계 3대 진미인 제비집 양식 동굴을 구경하고 호핑 장소에 향했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거대한 목선이었다. 그리고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의 OST가 배경음으로 흘러나오니 모험을 떠나는 기분이 들었다.

배에 올라 타자 해인사 호핑 전문 가이드가 우리를 반겨주었는데 배 안의 분위기는 파티장 못지 않았다. 푸른 하늘과 파란 바다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거기에 신나는 노래와 함께 춤도 추고 다이빙도 하면서 호핑은 너무 즐거웠다. 그리고 이색 경험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수중 각테일바를 통해서 수영과 함께 바다에서 약간의 무알콜 각테일도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셋째날의 해가 떠올랐다. 세 번째 날은 나트랑 문화 유산 관광과 머드온천 관광이 예정되어 있었다.

나트랑에는 포나가르 사원이 유명인데 포나가르 사원은 9세기에 참파 왕국이 세운 힌두교 사원이다. 현존하는 참파 유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하는데 붉은 색의 흙벽돌을 쌓아 올

려서 만들어져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난다. '포나가르'는 10개의 팔을 가진 여신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불교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가 방문한 그 때에도 많은 불교 신자들이 이곳에 찾아와 소원을 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트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머드 온천이다. 체온보다 살짝 높은 온도의 머드로 원우들과 함께 온천욕을 하니 서로 친밀해지는 것은 물론 여행의 피로도 풀리고 피부도 좋아지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세미나의 클라이막스로 향하고 있었다.

바로 인력거(자전거)를 타고 나트랑 밤거리를 돌고 쉐라톤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야경을 즐기는 것인데 30대의 인력거가 줄줄이 이동하는 장관을 연출했고 나트랑 밤거리를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쉐라톤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의 야경은 왼쪽으로 백사장과 그 백사장을 따라 이어진 도로 오른쪽에는 빼곡히 펼쳐진 도심과 고층 빌딩들

의 네온사인 또 그 위로 펼쳐진 밤하늘에는 별들이 우리의 이름을 써놓은 듯했다. 그리고 그 날은 특히나 보름달이 크게 뜨는 밤이었고 그 아래에서 좋은 사람들과의 즐거운 대화가 오가며 세미나의 마무리로는 완벽한 밤이었다.

"여행을 같이하면 가족이 된다."는 말이 있다. 이렇듯 베트남 나트랑 세미나는 우리 정책대학원을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다.



한준혁(석사 제63기, 국토경제학과)



고대 참기름

올해도 **국내산참깨**로 정성들여 만든
고대참기름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입금계좌 : 하나 391-910009-93304
예금주 : (학)고려중앙학원 식품사업부



1인
33,000원



2인
60,000원



3인
90,000원 (배송료 포함가)

주문 및 문의 : 080-010-1905

※받으시는 분이 다수일 경우에도 원하시는 주소지로 확실하게 배송해드립니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식품사업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



www.kosso.co.kr



정책대학원 33주년 정책인의 밤 개최

프레젠테이션 콘테스트, 감사패 및 공로패, 장학증서 전달식 등 열어
다양한 전공과 관련된 발표 등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져

지난 12월 20일(금) 저녁 6시, 본교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제59대 총학생회가 주최하고 정책대학원 교우회가 후원한 '정책인의 밤' 행사가 열렸다. 올해는 본교 정책대학원이 33주년이 되는 해로, 본교 수당삼양 패컬티하우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정책인의 밤' 행사에는 제 59대 남기환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선배 원우들과 석사과정 제 62기 원우, 정책대학원 교수님들이 모여 한자리에 모여 어우러졌다.

이날 행사는 1부 행사 △제 1회 프레젠테이션 콘테스트 2부 행사 △내외빈 소개 △총학생회장 인사말 △총학생회장단 축하 정책대학원장 축하 △교우회장 축하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식 △자랑스러운 정책인 상 시상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 △찬조 소개, 기념촬영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각 기수 별 송년의 밤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의 첫 순서로 진행된 제 1회 프레젠테이션 콘테스트에는 석사과정 재학생 중 5팀이 참가하였다. 정책대학원 재학생들의 발표능력 함양을 통한 핵심역량 개발을 위해 개최된 본 콘테스트에서 각 팀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관심분야에 대해 뚜렷한 메시지를 담아 독창적이고 창의성 있게 자료 제작 및 발표를 진행하였다. 본 콘테스트의 심사를 위해 정책대학원 김태일 원장과 최수영 교수, 송인석 교우회장, 이수리 제 58대 총학생회장과 남기환 제 59대 총학생회장이 자리하였다. 시상 은 최우수상, 우수상과 장려상으로 이루어졌다. 최우수상은 "개인납세자의 펀드 투자이익 관련 세제 운영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4조

가 수상하였다. 우수상은 "2019 대한민국 화폐개혁 issue"를 주제로 발표한 1조가, 장려상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한 3조가 수상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해당하는 상과 더불어 정책대학원 김태일 원장 지원하의 장학증서도 수여되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남기환 제 59대 총학생회장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 정책대학원 당시의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첫 발을 떼는 것은 언제나 설렘만큼의 두려움을 담보하는 일이었습니다. 허나 우리들, 이렇게 일 년의 시간 동안 지성의 전당인 고려대학교에서 당당한 정책대학원생의 일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눈물겨웠던 시간들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며



BANYAN TREE
CLUB & SPA

문의전화 02-2256-6677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가운데 송년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성공과 건승이 가득하길 바라며 정책인의 밤 송년 인사를 마칩니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 김태일 정책대학원장은 "정책대학원 원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대학원의 한해를 마감하는 정책인의 밤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돌아해보면 정책대학원은 지난 30여년동안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석사과정 교수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우리사회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정책대학원은 잘해왔다고 자부합니다만 앞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석사과정의 커리큘럼과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더욱 개선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며 "열과 성을 다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신 남기환 제 59대 총학생회장과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축하의 인사말을 건넰었다.

이어 새로 당선된 김지훈 제 60대

총학생회장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 60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김지훈입니다. 시험기간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마음 모아주신 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멋지고 힘차게 정책대학원을 이끌어 와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원우님들, 그리고 함께 해주는 동기, 후배 원우님들 곁에서 항상 함께하겠습니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본 행사에서는 감사패, 공로패, 장학증서와 장학금, 자랑스러운 정책인상을 수여하는 뜻깊은 코너가 진행되었는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감사패에 김태일 정책대학원장, 최수영 국토경제학과 주임교수, 오승곤 경제학과 교수, 문호승 교수, 송익현 행정실 과장, △공로패에 송인석 교우회장, 강충열 총학생회장단협의회 회장, 남기환 총학생회장, 남명안 부총학생회장, 이재희 운영총괄위원장, △장학증서와 장학금에 제 64기 임종섭 원우(경제정책), 제 64기 이수복 원우(경제정책), 제 64기 김강호 원우(글로벌정치), 제 64기 최효종 원우(국토경제), 제 64기

김효은 원우(도시 및 지방행정), 제 64기 황혜린 원우(조세재정), △자랑스러운 정책인 상에 제 60기 진수현 원우(도시 및 지방행정), 제 60기 이승한 원우(조세재정), 제 61기 이춘식 원우(조세재정), 제 61기 박지형 원우(국토경제), 제 62기 구명희 원우(도시 및 지방행정), 제 62기 유제민 원우(경제정책), 제 62기 한동기 원우(경제정책), 제 63기 장재홍 원우(글로벌정치), 제 63기 민병규 원우(도시 및 지방행정), 제 63기 장용수 원우(글로벌정치), 제 63기 유동길 원우(조세재정), 제 63기 한준희 원우(국토경제), 제 63기 조연주 원우(조세재정)

원우들은 각기 기수별 송년의 밤 순서를 가지며 각 기수별로 지난 일 년간의 추억을 돌아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정책인의 밤' 행사는 막을 내렸다. 총학생회가 임기 중에 주최하는 마지막 행사인 만큼 원우들은 어느 때보다 뜻깊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0년을 축하하였다.



(주)에이치케이조선

유람선, 어선등을 중심으로 한국 대표 주력 선형 개발을 통해 기본/생산설계, 브랜드화 및 표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www.hankukship.com

HKS (주)에이치케이조선
HANKUK SHIPBUILDING CO., LTD

경상남도 사천시 사등동 236번지 TEL 055)835-0541 FAX 055)835-2143
대표 박 흥 갑 016-665-6791 (81학번, 사회학과)

지구촌의 국제적 불평등 문제 해결에 일조하는 지식인으로 거듭나고파

정책대학원 석사과정을 발판삼아 졸업 이후에도 세계 여러나라의 정세를 보는 안목을 기를 것



김정아
(석사과정 국제관계학과 60기)

△ 간단한 자기소개(기수, 종사분야, 정책대학원 입학 계기)

안녕하세요.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과 60기 김정아입니다. 저는 현재 뉴욕 유엔본부에서 감사 인턴십(Audit Internship) 과정을 밟기 위해 미국에 와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약 4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 재무팀에서 근무를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구촌의 국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조하는 사람

이 되고 싶었고, 이는 자연스레 국제기구나 국제 NGO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및 세계 정세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국제기구의 여러 채용 공고를 살펴보니 석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어 정책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활동분야들에 대한 소개와 구체적인 활동내용 및 소감

저는 오는 4월부터 네 달간 유엔의 감사위원회(Board of Auditors; UN BoA) 인턴십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유엔 감사위원회는 유엔 전반의 회계책임성을 확보하는 독립된 외부감사기구로 매년 유엔사무국 등을 포함한 21개 산하기구 및 동 기구의 주요 사업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유엔총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인턴으로서 수행할 업무들은 SDGs 목표에 따른 회계보고기준 분석, 유엔 및 산하기구의 감사 활동 제반 업무 보조, 연례 감사위원회 총회 준비 보조, 기타 회의 등 참석 및 회의록 정리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본 인턴십을 통해 유엔본부의 감사 활동을 직접 경험 및 관찰하고 재무회계 분야에서 국제적이고 거시적인 시야를 확립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활동방향이나 계획

본 활동이 끝난 후에는 이를 발판 삼아 인턴이 아닌 정규직원으로서 업무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비록 제가 커리어를 쌓고 있는 재무회계직군이 직접 현장과 소통하는 일선의 업무는 아니지만, 저는 선진국 이외의 개발도상국에서도 경험을 쌓아보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제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남미나 아프리카 대륙에서 필요한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재무회계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 정책대 교수들에게 하고싶은 말씀

5학기가 언제 끝날지 아득하기만 했는데 어느덧 졸업생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정책대학원을 통해 미래의 꿈을 향해 한걸음 더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피곤하셨을텐데도 불구하고 늘 수업에 참여해주셨던 많은 학우분들과 교수님들께서 계셨기에 저도 같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많은 질문으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가주시던 국제관계학과 선배님들께서 제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학업에 매진하시는 교수분들께 존경심을 표하며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GS 건설

문화로 주거의 수준을 높이다

The Culture **Xi** 자이

{ 자이 갤러리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누리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www.xi.co.kr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연산자이갤러리



서교자이갤러리



대치자이갤러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수강할 수 있는 정책대학원 만드는데 집중할 것

배움이라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



김지훈
제60대 총학생회장

△ 정책대학원 제60대 총학생회장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을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학교와 원우님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책대학원 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만 모인 이곳에서 원우님들의 구심점이 되어 대학원 발전에 앞장설 수 있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약 했던 정책대학원 5행시 정: 정직함 책: 책임감 대: 대화함 학: 학(學)업 (UP) 원: 원우님들과 함께 그리는 제 60대 총학생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책대학원을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혹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아쉬운 부분 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입학한 2018년 2학기에 비해 강좌수가 눈에 띄게 줄다 보니 원우님들이 수강신청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상깊었던 부분은 타고 대학원에 비교할수 없는 참여율입니다. 대부분의 원우님들이 생업과 학업을 병행함에도 수업과 행사 참여에 아주 적극적인점이 가장 인상적이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대학원만의 전통으로 자리잡은것 같습니다.

△ 총학생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정책대학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배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입학한 만큼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학생의 권리와 의무는 배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책대학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원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학생회장으로서 정책대학원을 위해 구상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2020년도 1학기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준비중인 사업은 잠정 중지상태입니다. 계획중인 사업은 원우님들이 수업을 받는데 있어 안전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것입니다.

우선 친환경 소독제 기계를 구비하여 강의실및 총학생회실등 원우님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자체

적으로 소독을 할 예정이고 정책대학원 안전키트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두었습니다. 안전키트 구성품은 KF94 마스크, 에탄올99.9%휴대용 소독티슈, 휴대용 손소독제를 1세트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강의실과 총학생회실에서의 주의사항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부착하려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잠정연기된 65기 신입원우님들 환영회도 정책대학원 최초로 사이버 환영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원우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함께 그리는 제60대 총학생회” 우리 60대 총학생회 슬로건처럼 함께 하는 우리 정책대학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사태로 다들 힘든 시겠지만 열정적인 대학원 생활과 총학생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외치는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하나다!

위하 고! 위하 고고!! 위하 고고고!!

경력

현) 주식회사 쌍문운수 이사

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19기
도봉구협의회 청년분과위원장
(대통령직속자문기구/헌법기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매일 편리하게 오가는 출근길
5천만 국민이 편리하게 쓰는 상수도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녹지공원
가족의 더 큰 사랑과 행복이 자라는 내 집
세상 어느 곳보다 살기 편한 대한민국
LH가 만드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자랍니다

세상 모든 가치의 시작
from LH

공기업
대한민국 서포터즈

LH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2,461개의 자연

6억1,800만㎡의 숲터

5,516km의 도로

227만 채의 보금자리

15,932km의 생활수로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체육대회



일자 : 2019년 11월 9일(토)
장소 : 고려대학교 녹지운동장

2019 하반기 고연전 친선 체육대회



일자 : 2019년 11월 9(토)
장소 : 연세대학교 스포츠과학관

제35회 고려대 정경대교우회 골프대회



일자 : 2019년 11월 10일(일)
장소 : 파주컨트리클럽

제59대 총학생회 문화day



일자 : 2019년 11월 24일(일)
장소 : 극장동국 공연장

제59대, 60대 총학생회 인수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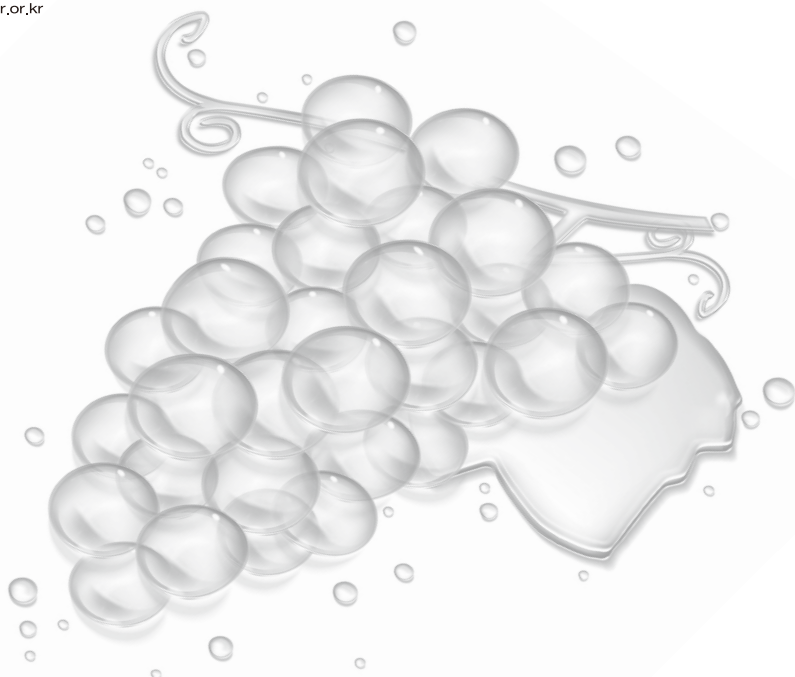
일자 : 2019년 12월 30일(월)
장소 : 넘버85

제60대 총학생회 임원회의



일자 : 2020년 1월 2일(목)
장소 : 정경관 514호(총학생회실)

<http://www.kwater.or.kr>



신선하고 맛있는 물!

언제 어디서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건강한 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물 전문기업 K-water!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을 만듭니다





코로나 19 고려대학교 대응 지침

2020년 3월 19일

코로나 19 대응 지침 I (2020년 3월 19일 현재)

유증상자

- ①: 코로나 19 지역 전파 국가 체류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경우
- ②: 확진 환자의 증상발생기간 중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경우
- ③: ① 에 해당하는 유증상자와 접촉한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경우
- ④: 2월 8일 이후 국내 특정 폭발적 유행지역·장소 체류자로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경우

▶ **등교하지 말고 -> 전화: 1) 국번없이 1339 또는 관할보건소 전화 -> 안내에 따라 선별의료기관 방문하세요**
2) 학교 02-3290-1571 (외국인 02-3290-5119) 로 전화 보고

: 반드시 마스크 (일반)를 착용하고 안내 받은 선별의료기관으로 방문하세요.

- 그 외 상황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3-4일간 집에서 안정하십시오.
 호전되지 않으면 1339 전화로 의료기관방문을 상담합니다.

코로나 19 대응 지침 II (2020년 3월 19일 현재)

무증상자 - 지역 전파 국가 및 지역 체류 학생/교직원 등교 제한

- **코로나 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에서 입국 후, 최소 14일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국내 특정 폭발적 유행지역·장소를 방문한지 14일 이내의 학생 및 교직원은 고려대학교 지침에 따라 **등교 자제**를 권고합니다.

: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은 전화 02-3290-1571 (외국인 02-3290-5119) 로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 > 관찰기간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시 1339 전화 -> 안내에 따라 선별의료기관 방문하세요.
- > 귀국일 기준, 14일 경과 후 발열과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목구멍 통증 등)이 없으면 등교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대응 지침 III (2020년 3월 19일 현재)

기숙사 이용 시 유의사항

- **코로나 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 체류 후 입국일 기준, 최소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교직원 및 학생들은 **기숙사 이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학교의 안내에 따라 지정장소에서 해당기간동안 기거하여야 하며
 1일 1회 이상 (오전10시 또는 오후4시) 전화 **02-3290-1554** 로 증상 여부를 자진 신고합니다.

: 자택격리가 가능한 학생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방문은 자제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증상이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합니다.

- > 관찰 기간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시 1339 전화 -> 안내에 따라 선별의료기관 방문하세요
- > 귀국일 기준, 14일 경과 후 발열과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목구멍 통증 등)이 없으면 등교 가능합니다.

- * 교직원 및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해당 지침은 코로나 19 확산상태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2020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학사일정

2월	3(월) ~ 25(화)	2020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기간
	11(화) ~ 12(수)	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 원서접수
	21(금) ~ 27(목)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정규등록)
	19(수) ~ 21(금)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3월	17(화)	2020학년도 1학기 첫수업
	17(화) ~ 19(목)	신입생 선수과목면제신청서 제출
	17(화) ~ 19(목)	논문트랙 신청서 제출(4학기생 이상 희망자) / 지도교수 신청서 제출(논문트랙 신청자)
	17(화) ~ 20(금)	수강신청 정정기간
	24(화) ~ 26(목)	2020-1 종합시험, 졸업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31(화)	지도교수변경 신청 마감(당해 학기 신청자 제외)
4월	6(월) ~ 22(수)	2020-전기 석사 특별전형 입학시험 원서 접수
	15(수)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14(화) ~ 17(금)	석사학위 청구논문승인서 및 심사용 논문 제출
	27(월) ~ 1(금)	중간고사
	30(목)	부처님오신날(공휴일)
5월	1(금) ~ 29(금)	논문 심사
	5(화)	개교기념일, 어린이날(공휴일)
	6(수)	2020-후기 석사 특별전형 입학시험 시행(오후 7시)
	7(목)	2020-1 종합시험, 졸업시험 시행 (오후 7시)
	15(금)	종합시험, 졸업시험 합격자 발표
6월	5(금)	2020-후기 석사 특별전형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
	5(금)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6(토)	현충일(공휴일)
	22(월) ~ 26(금)	기말 고사
	29(월)	여름방학 시작
8월	3(월) ~ 25(화)	2020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기간
	4(화) ~ 6(목)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원서 접수
	14(금)	2020학년도 후기 입학식(예정)
	15(토)	광복절(공휴일)
	18(화) ~ 20(목)	2020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예정)
	21(금) ~ 28(금)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예정)
	25(화)	학위수여식(예정)

※ 본 학사 일정은 대학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66기 최고위정책과정 학사일정

4. 10(금)	한국 사회와 보건의료체제 변화 /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4. 17(금)	고려대 박물관 / 최광식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4. 24(금)	건축가의 생각 방법 / 서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5. 8(금)	춘향전 흥부전으로 조선시대 이해하기 / 강제훈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5. 15(금)	총선 이후의 전망 / 박형준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5. 22(금)	싱글몰트위스키 문화사 / 박병진 (ADT캡스 엔터프라이즈 사업본부 상무이사)
5. 22 ~ 23 (금, 토)	[국내 세미나]
5. 29(금)	한국 근대문학과 그 가원 / 권보드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6. 5(금)	그림 속 경제사 / 송병건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6. 12(금)	대중음악, 소통과 혁신의 사회적 가치 /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겸 방송인)
6. 19(금)	톨스토이에게 묻는다. 어떻게 살 것인가 / 석영중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6. 26(금)	위기관리의 결정적 리더십을 찾아서 /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
7. 3(금)	현대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 /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본 학사 일정은 대학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60대 총학생회 행사일정

년월	일자(요일)	내 용	비 고
3월	17(화) ~ 19(목)	개강 다과회(생일자 이벤트)	
	25(수)	총학생회 임원단 선임증 수여식	원장님 참석
	17(목) ~ 4.2(목)	각 학과별, 기수별 모임 진행	각 기수 기획장
	일정 협의	특수대학원 연합회 불링대회	원장님 참석
4월	10(금)~12(월) 또는 5.29(금)~31(일)	국내세미나	원장님 및 주임교수님 참석
	16(목)	종합시험, 졸업시험 시행	
	27(월)~1(금)	중간고사	
5월	6(수)	2020 후기 석사입학시험	
	16(토)	두물머리 행사	연세대 주최
6월	9(화)~11(목)	제61대 총학생회 선거	
	22(월)~26(금)	기말고사	
	27(토)	학술콘서트	원장님 참석

※ 본 일정은 총학생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60대 총학생회 슬로건



한국 사상의 기원

한국에 비해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폭력적이다. 영국만 보더라도 미국과 호주에 처음 정착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을 학살했고 이외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을 본받고 따르려 하는가? 그들이 힘이 있고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순리상 폭력을 통해 이득을 취한 곳이 계속 해서 잘 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서구에서는 현재 문제가 심각하다. 영국에는 외로움 부가 있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서양에서는 사랑을 할 때 이를 쟁취하기 위해서 남과 경쟁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희생을 해야하는데 우리는 희생을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 하나가 되고,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국 드라마의 대표적인 소재인 가난한 집의 여성이 부자집 남자를 사랑할 때 서로 불행하게 헤어지는 경우도, 외로움을 느끼는 외국 시청자들에게 희생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한국 드라마의 전세계적 성공을 이끌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문화가 전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상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인의 맑은 물에 따른 이동경로를 생각할 수 있다. 물을 통해 본질을 깨우치려고 한다. 10개의 얼음도 본질은 같은 물이지만, 본질을 잊으면 10개의 얼음으로 나뉜다. 마찬가지로 가족과 친척도 본질은 같은 핏줄이나 본질을 잊으면 남이 되어버린다. 결국 본질적인 것, 진실되는 것, 참된 것들 모두가 하나다.

아무리 인생에서의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도 늙기 마련이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 그로부터 불행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경쟁과 성취에 욕심에 고취하여 집착을 하게 되면 인간이 아닌 짐승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 우리는 5천여년 전부터 인간이 되는 방법을 탐구했다. 동물과 짐승은 개념이 다르다. 비인간적 존재를 짐승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최치원 선생이 언급한 사상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있다. 「천인심성합일지도」를 보면 그림 흰부분이 참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변질되면 검은 짐승이 된다는 것이다. 뇌 속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이 사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말들에 어폐가 있다. 설명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서 사랑하

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것이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 하늘의 뜻인 것이다. 밤이 되었을 때 최초로 발생하는 졸리다는 생각이 선이고 굳이 잠을 안 자는 것이 두 번째 생각, 즉 아(亞)인데 이러한 마음에 심(心)을 더하면 악(惡)이 되는 것이다.

내 것을 챙기는 인간의 마음 때문에 최초의 하늘과 인간의 마음은 선했는데 점차 악해지고 탁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내 것을 챙기려면 상호간의 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 사람이 탁해지는 것도 무엇인가를 막아서 그런 것이다. 대다수의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사람들은 우리의 본질이 개인주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르다. 소위 선진국들의 방식과 같이 사는 '짐승'으로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풀이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한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이 풀린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본성적으로 철학적 기질이 있다. 넓은 마음을 회복하고, 맑은 머리를 회복하고, 두터운 몸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한을 푸는 방법일 것이다. 우리는 항상 내부 분열에 의해서 나라가 몰락했었다. 노래를 끊임없이 불러 악을 부수고 선을 기르자는 것과 선한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들을 정리한 것이 공자의 논어 맹자등이다. 이처럼 서양의 사상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을 정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스스로 몸을 후하게 유지하고 몸 자체를 따뜻하게 해야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우리는 하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늘 같은 존재가 되면 나라는 실체가 사라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는 것도 결국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맡고 있는 역할일 뿐이다. 이를 깨닫게 되면 거만한 마음가짐을 청산하고 그 역할에 충실한 자세를 가지게 된다.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익을 위해 희생하는 정신이 바로 홍익인간이다. 이를 이어받은 한국이 우리의 사상을 바탕으로 현재 어지러운 세계 정세의 주역이 되어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기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햇살로
내일을
키우자

태양의 힘으로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 피우자
함께 행복을 나누고 오늘보다 더 큰 내일의 꿈을 꿀 수 있게 하자
대한민국에 따뜻한 한화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Hanwha

6
ANNIVERSARY
th



[한화의 Happy Sunshine 캠페인] 한화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에너지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정부의 경제역할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다들 한 때 큰 인기를 끌었던 응답하라 1988을 보셨을 것이다. 이 드라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시대상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88올림픽 개최와 백화점에서의 쇼핑 장면을 통해 그때부터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비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IMF 외환위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다고 볼 수 있다. 당시는 내일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던 시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지금은 과거보다 힘들어진 삶으로 바뀌었는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이가 커지는 경제성장보다는 분배의 양극화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사회 경제구조가 산업화 사회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탈산업화로 변모하였다.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멜서스의 인구론이 합리적인 예측이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이후로는 생산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공급 능력은 충분한데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에서 유류인력이 발생하면서 그 인력들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생산성 측면에서 제조업은 매년 전년대비 배가 넘게 상승하는데 서비스업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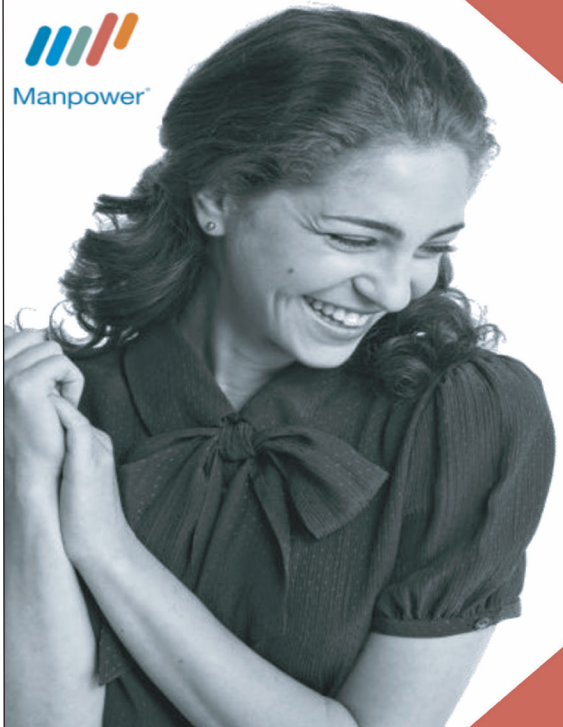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에서 역시 임금 상승은 동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탈산업 사회에서는 산업사회에 비해서 경제성장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부의 양극화는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의 양극화는 서비스업의 다양한 특성에서 기인한다. 우선 근로자 간의 생산성 차이가 크게 나지 않던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생산성의 개념보다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임금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 예로 소수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경영 서비스를 생각해볼 수 있다. 경영 서비스는 기업이 수요자이기도 하고 지식경제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서비스 사용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의료와 교육은 생산성 증가 자체는 낮지만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생산성 대비 높은 금액을 사용료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은 일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임금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저성장, 근로 빈곤, 소득양극화 발생, 그리고 GDP 대비 의료와 교육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문제를 정부가 유발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경제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경제가 무조건적인 악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해결 방안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복지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복지는 산업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현상화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 노동 정책과도 연계해서 고려해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탈산업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의 대처를 보면 국가마다 다양하다. 하지만 공통 처방은 존재하는데, 우선 노동관련 법규를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탈산업사회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경향 자체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불법 부당에 의한 질 낮은 일자리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민주화 정책으로써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해야 이끌어야 한다는 처방이 있다. 근로자와 기업, 또한 원청과 하청 기업의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외의 경제 전반의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혁신 제약 요인 제거하고 보상을 높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불평등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경제 전체가 성장해서 모두가 수혜를 받는 상황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사회안전망으로 뒤쳐진 자에게는 일정 소득을 보장하며 재기 발판을 마련해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HUMAN AGE!

맨파워는 인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헤드헌팅	아웃소싱	인재파견
채용대행	IT BPO	전시·컨벤션 기획
HR 컨설팅	아웃플레이스먼트	탈런트매니지먼트

혁신적인 인재 솔루션을 위한 여러분의 파트너

Manpower Korea

www.manpower.co.kr

Since 1948 in USA

대표이사 문용기 (무역 76)

와인과 문화

서양에서는 와인이 우리나라의 국에 해당한다. 와인 맛이 좋으려면 원료가 좋아야 한다. 좋은 와인의 경우, 재료 관리를 위해서 세심한 관리를 하기에 이에 들어가는 노력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더 비싼 것이다. 일반적인 레드 와인은 15도 정도에 맞춰서 마시는 것이 좋다. 와인은 보관할 때 항상 눕혀서 보관해야 한다. 세우면 공기가 들어가서 상하기 때문이다. 장기 숙성 와인의 경우, 난파선에서 발견되곤 한다. 오래된 와인은 시간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포도주를 마실 때는 약한 것부터 강한 것 순으로 마셔야 한다. 화이트 와인의 경우, 리슬링, 슈냉 블랑, 소비뇽 블랑, 피노 그리시오, 샤르도네 순이며, 레드 와인은 가메이, 피노 누아, 산지오베제, 메틀로, 진판델, 카베르네 소비뇽, 네비올로, 시라/쉬라즈 순으로 강하다. 와인의 효능은 건강 측면에서 분명하데, 식단이 유사한 미국인과 프랑스인들의 건강 상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기름진 육류를 주로 먹는 양국의 국민들의 수명 혹은 심장질환 발병률을 비교하면 미국인들이 훨씬 일찍 사망하고 질환에도 훨씬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프랑스인들은 일상적으로 와인을 즐기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복분자는 그 안에 엄청난 향산화 덩어리가 들어 있어서 좋은 것이다. 이는 머무와 포도주도 마찬가지인데 마치 약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일반 와인은 2,3년 된 것이 가장 맛있고, 장기 숙성 와인의 경우 그 종류가 아예 달라서 숙성할 수록 맛이 좋고 가치가 올라간다. 포도주는 드라이하고 단맛이 없다. 보통 일반적인 와인은 3~5년 된 것이 좋고, 백포도주도 2, 3년 된 것이 좋다. 각 와인에 어울리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음식 선택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알콜 도수가 높은 포도주를 짠 음식과 함께 마시게 되면 음식이 더 짜게 느껴지므로 음식과 포도주 맛을 나쁘게 한다. 이때에는 알콜농도가 낮으며, 과일 향이 높거나 혹은 약간 단맛의 백포도주가 양쪽 맛을 살린다. 또한 크림 류가 들어 있는 음식은 떼은맛이 강한 적포도주와 같이 먹으면 포도주의 타닌과 음식의 크림이 화학 반응을 하여 괴상한 맛을 내므로 피해야 한다. 식탁에서의 예의도 매우 중요하다.

식탁에 앉으면 오른편에 있는 물잔과 와인잔이 본인 것이고, 와인을 손님 잔에 따르기 전에 주인이 먼저 와인 테이스트를 한다. 과거에는 와인에 독약을 타지 않

았다는 증거를 손님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식이었지만, 현재는 와인이 변질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의인 것이다. 초대 받았을 시, 주인이 와인을 따르는 동안에 와인잔을 탁자에 놓고 기다리는 것도 식탁에서의 예의이다. 와인은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주나 맥주와는 다르게 향과 맛을 음미하면서 음식과 분위기를 즐기는 방식으로 마시는 것이 일종의 예의이다. 이를 위해 대화 도중에 혹은 음식 삼킨 다음 약간의 빈 시간에 한 모금씩 마시며 향과 맛을 즐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입안을 청소하여 다음 요리의 맛을 감상할 준비를 한다. 주인일 경우는 손님이 잔을 비우기 전에 더 마시겠느냐고 물은 후 첨잔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와인을 따를 때에는 병이 상대방의 잔에 부딪치지 않게 하는 것이 매너이다.

와인의 맛과 향을 구별할 때에는 색, 냄새, 맛, 시각적인 판단이 기준이 된다. 색의 경우, 백색 배경으로 포도주 잔을 들고 약간 기울여서 끝 부분의 색도를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다. 냄새는 포도주를 따른 후 잔을 흔들지 말고 코를 잔 위에 가깝게 한 후, 빠르게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 냄새를 맡는다. 다음에 잔을 들고 1-2회 회전시킨 후 코를 잔에 바짝 대고 1-2회 짧고 깊은 숨을 쉬어 냄새를 맡는다. 소량의 와인을 입에 넣은 후 혀의 모든 부분에 고루 퍼지도록 하여 여러 가지 맛을 보도록 한다. 또한, 와인을 잔의 1/4 정도 채우고, 흰색 배경 위에서 잔을 앞쪽으로 약 45도 정도 기울이고 내려다보면 와인의 혼탁여부를 잘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병 밑 부분에 모래 같은 결정은 주석산 염이 침전된 것임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무판자 썩는 냄새, 식초 냄새, 알데하이드 및 아세톤 냄새 혹은 기타 불쾌하게 느껴지는 변질된 냄새가 나면 거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간략하게나마 와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와인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배운다면 다른 곳에 가서 교양 있는 지성인으로서 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박현진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자연이 사람을 반깁니다
도시가 사람을 반깁니다
여기는 대한주택공사 휴먼시아입니다

세계최고의 주택도시 전문기업
대한주택공사

Humansia(휴먼시아)는 Human(인간)·In(인류)·Sa(삶)의 대지 공간의 합성어입니다. 휴먼시아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주거공간을 창출해 국민에게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제공하는 주택공사의 브랜드입니다. 분양·임대문의 1588-9082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결한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 부조리 신고는 국토해양부(www.mtr.go.kr)부조리신고센터 / 대한주택공사(www.jugong.co.kr)부조리신고센터

대학교 창업교육,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보다



정부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대학생 창업 성과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대학의 다양한 창업교육 및 특강 활성화에도 졸업 후 대학생들은 여전히 취업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었다. 창업교육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대학은 증가 추세이며 교과목 종류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학과 선배에게 직접 강의를 들으며 실무적인 방식과 문제점, 방안 등을 들을 수 있는 취지이다. 진로탐색수업을 개설하여 매주 다른 주제로 직업을 탐색해볼 수 있는 수업에 다양한 직종의 강사를 초청하려 노력 중이다. 그러나 선배, 또는 강사와의 멘토-멘티와의 관계가 1:1부문보다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

창업 동아리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교수와 학생이 함께 활동하며 지도교수와의 유대관계 형성을 자연스럽게 거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업활동 과정에서 창업캠프, 경진대회,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적극성을 도모해야 한다. 실제 예로 인천대는 2011년부

터 창업지원을 도모해 왔으며 창업지원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운영평가 S등급을 획득, 35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인천대는 창업교육부터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후속 지원까지 패키지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창업 장학금, 창업 지원금, 학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지원금을 마련해주는 등 학생당 창업지원액도 높다. 한양대는 29억원의 교비지원액과 43억원의 정부지원금 등 총 72억원의 학생창업 지원금을 제공 받았으며, 고려대도 창업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학생 창업공간인 파이빌을 비롯해 창업 지원 조직인 크립스창업지원단 등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2008년에는 국내 최초로 창업전 과정을 가르치는 정규 교과목 ‘캠퍼스 CEO’를 개설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내가 바라본 창업교육 및 대학생 창업 활성화 방안으로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졸업 후 창업지도 실적 포함 및 전임교원확보율 문제 개선이다. 대학 재학 중에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보다 졸업 후의 시도가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대학을 통한 지원은 졸업 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대학기본역량진단, LIN+평가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창업부문 평가에서 졸업 후 5년 후까지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할 필

요가 있다. 현재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의 인정범위로 일반전임교수, 교육전담(강의전담)교수, 연구중점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초빙교수가 지 가중치를 동일하게 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2주기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일반전임 교수보다는 초빙교수를 대거 채용하여 전임교원확보율을 확보한 후 강의도 하지 않는 초빙교수들이 있는 대학들이 있다. 산학협력(중점교수 포함)교수 임용 후 산학협력업무에 제재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전임교수로 임용하기에는 신분보장의 부담감과 연봉의 부담이 있어 대학 재단에서 이를 변별력 있게 피해 가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대학 스스로 자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가정신이 높고 창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발굴, 지원을 유도하여 대학의 핵심브랜드를 고려한 학생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아이템을 선정 후 지도교수의 기술이전 및 지도 동기부여(예: 공모주식 비중 확대)와 마케팅에 교직원, 동문의 참여가 수익금의 일부를 대학에 후원 및 멘토 역할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이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대학에서는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 방학을 활용하여 창업 특강, 창업 동아리 활동, 창업 워크샵 및

김하은 | 석사65기 (경제정책학과)

캠프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이들 활동의 참여실적 일부분을 교양강좌 출석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각 대학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특강과 유망 프로그램을 창업교육거점센터에서 수집한 후 전국 단위 창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탑재함으로써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창업교육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의 전 단계로 교육부에서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교육부중점연구소(정책형) 중에 창업교육 중점연구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이 연구소에서는 모범적인 창업교육 특강, 강사 풀 공유, 창업교육 성과 분석 등 창업교육 관련 정책의 효과성 검증, 창업교육 DB 구축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선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기대만큼 대학생 창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단순한 창업 스킬을 가르치는 데에만 목표를 두어서는 안된다. 창업생태계가 정착되고 문화를 고조시켜 창업 분위기를 높이며 지도교수는 본인의 연구개발 부분에 대해 소개를 강화함으로써 창업 아이템들에 대한 정보 제공 기회를 높이고 자유로운 만남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의문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에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헌법규정이 무색하게 2019년 9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전체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해서 이전부터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특히 청년층은 더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수도권에 있으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기업들은 인재 유치를 위해서 다시 수도권으로 연구소를 이전하고 있다.

이로인해 청년층이 사라진 지방 소도시는 신생아가 급격히 줄고 고령층이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과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층이 사라진 지역에는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 필수적인 시설도 같이 소멸하고 있어 점점 청년층이 살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수도권에 인구 집중화는 우리나라 부동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2018년 기준 인구밀도는 1km² 당 서울은 16,304명이고 부산은 4,416명, 대구 2,773명, 인천 2,764명, 광주 2,980명으로 서울은 부산의 3.6배, 대구의 5.7배, 인천 5.8배, 광주 5.3배이다. 하지만 2018년 평균 공시지가는 1m² 서울은 2,582,572원, 부산 338,188원, 대구 209,111원, 인천 279,102원, 광주 139,673원으로 서울은 부산의 7.6배, 대구 12.3배, 인천 9.2배, 광주 18.4배로 인구밀도에 비해 부동산 가격의 격차가 더욱

컸다.

또한, 인구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부동산 집중화 현상은 국민대차대조표 매년말 시점을 기준으로 각 경제주체와 국내에서 보유한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금융부채의 가액 및 그 증감을 기록한 스톡(stock) 통계로, 통계청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집계 공개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총액은 국내 총생산(GDP)의 7배로 일본의 4.8배, 프랑스의 5.5배로 생산자산에 비해 부동산에 국가 전체 자산의 많은 부분이 쏠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목아래 도시재생 사업, SOC 개발 등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지방 소도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와 동시에 수도권에 제3신도시를 발표하고 GTX를 설치하는 등 모든 문제점을 개발 정책으로 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되고 청

김수민 | 석사65기 (국토경제학과)

년층이 없는 지방소도시에서는 자연증가에 의한 인구 증가는 기대할 수 없고 수도권의 인구가 재분배 되어야만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있지만 수도권을 개발하면서 지방을 개발하는 이율 배반적인 정책으로는 당초 목표로 했던 인구 재분배를 이룰 순 없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돈을 안쓰는 것보다 돈을 쓰면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예산 투입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임금을 더 낮게 받더라도 수도권에 남으려는 청년층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정책을 시작하여야만 조금이라도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신한생명

선거와 저널리즘, 공정보도 의무에 관하여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마스크 5부제 실시, 의료인들의 헌신, 철저한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는 사이 어느새 봄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점포에는 사람이 없어서 소상공인들은 당장 내달 가겟세를 걱정하고 있고 무급 휴가 중인 직장인들은 휴여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개학, 개강으로 전국 학교들이 사이버 강의를 진행함에 따라 교사와 학생들 모두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구절이 절로 생각나는 요즘이다.

그 와중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릴 앞으로 다가왔다. 그 사이 정치공학적으로 수많은 정당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였다. 거기에 더해 각 정당들의 비례대표용 정당들도 우후죽순 생겨서 정계 관련 보도를 열심히 챙겨 보지 않는다면 정당명과 소속 후보자들을 혼동할 정도에 이르렀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의 동향을 살펴보면 불과 열

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의 모든 이슈를 코로나19 사태가 잠식하였다가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고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선거 관련 언론보도들이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시민들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고 후보자들은 조용한 선거운동을 전개하면서 유권자들은 홍보물과 언론 보도를 통하여 후보자들을 알아가고 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특히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에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선거방송', '선거기사', '인터넷보도'로 보도 유형을 나누어 이를 심의하는 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불공정한 방송, 기사, 보도를 심의하고 있다.

그중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지면신문,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사를 대상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 언론사마다 모두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의 편향성은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면서 공정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기사들을 모니터링한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어떤 기사가 '공정한 기사'이고 어떤 기사가 '불공정한 기사'인지에 관한 물음이다. 이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심의기준을 제정하여 심의하고 있다. 수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는 특정 인물에 대한 부각을 들 수 있다. 가지역구에 출마하는 A 후보를 부각하여 연속적으로 보도하면서 같은 지역에 출마하는 다른 B, C후보들에 대한 보도가 현저하게 적거나 전무하다면 이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한 기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보자의 출마의 변이나 기자회견문 전문을 아무런 편집 없이 그대로 지면에 게재하거나 선거 90일 전부터 게재되는 후보자의 칼럼에 대해 그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등도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 밖에 포토저널리즘, 후보자의 저술광고, 여론조사 왜곡보도 등 여러 가지 위반 유형이 있다.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심의를 하다 보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필수불가결한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이는 최대한 보

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의 자유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해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기사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고민이 생긴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며, 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헌법기관인 국회를 구성하고 의정 활동을 수행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선출되므로 그 과정에는 필수적으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기간에 진입하였다.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는 「시편」에서 권력자로부터 무상으로 주어지는 '빵'과 '서커스'에 의해 로마 시민이 정치적 장님이 되었다고 풍자했다고 한다. 후보자들의 화려한 언변술이나 그들이 제공하는 당의 이익만을 좇아 대표를 뽑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당과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홍보물과 언론보도가 있다. 홍보물과 다양한 언론보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유능한 후보자를 추려내야 한다. 그렇기에 각종 미디어 정보를 주체성을 갖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가 더욱 중요한 이번 선거기간이다.

조아라 | 석사65기 (국제관계학과)

미·중 패권경쟁 프레임에 갇힌 한국 외교



"진실이 프레임과 맞지 않으면 프레임은 남고 진실은 빙겨져 나간다" 인지언어학자 G. 레이코프는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정치에서 이념적 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다. 프레임이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프레임 전쟁이 시작되면 갈등이 촉발된 사건에 대한 '진실'은 묻힌다. 어느 쪽이 더 '비'·'도덕적'인지를 가리는 싸움으로 비화될 뿐이다.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표현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트럼프의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로 펜으로 수정한 것을 포착했다. 참모들이 준비해준 연설문을 트럼프가 직접 고쳤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트럼프에게 '중국 바이러스'라는 표현이 인종차

별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듣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이렇게 발끈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미군이 우한에 코로나 19를 가져온 것일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개인' SNS에 올린 '추측성' 주장이었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셈이다. 하지만 외교부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이 사적으로 내뱉을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중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미국과 대립 각을 세운다. 지난 1월 18개월 만에 가까스로 무역갈등이 봉합됐지만 미·중 패권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인종 차별'과 '책임 회피', 어떤 것이 더 '비'·'도덕적'인지에 대한 미·중 간 프레임 전쟁 속에 한국은 눈치를 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중국인의 입국 제한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우한 거주 중국인의 입국으로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 환자가 발생한 지 2주 만에 중국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금지령을 내렸다. 76만 명의 동의를 얻은 '중국인 입국 금지'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방역의 실효성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일본이 한국인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하고 무비자 입국도 중단하겠다고 하자 우리 정부도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유럽 발 확진자가 늘어나자 '음성'이라도 유럽에서 장기체류한 내·외국인은 모두 2주간 격리하는 강수를 뒀다.

청와대가 생각하는 '국민의 이익'은 무엇일까. 청와대는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던 2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며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북미 대화 교착 국면에서 시 주석의 상반기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말하는 국민의 이익은 '외교적 이익'에 국한돼 있어 보인다. 하지만 '외교적 이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부족하다. 유엔 회원국의 90% 이상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나 제한 조치를 내렸다. 중국의 일부 지방 정부들도 한국 발 항공기 탑승자를 격리 조치했다.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로 기업들의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다.

부지불식간에 한국 외교도 미·중이 만든 패권경쟁 프레임 속에 갇혀버렸다. 줄타기 외교에 빠져 자국민의 보호가 외교의 본질이라는 점을 잊어서 안 된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중국인을 전면 입국 금지시켰다면 지금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지 아무도 알 수는 없다. 다만 국민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마저도 정치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분노하고 있다.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가장 우선시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현재 우리 정부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이 15%까지 증가했다는 것, 코로나 확산이 또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NO.1 웨딩컨설팅
BEST Wedding Net

특별한 날에는 베스트웨딩넷

예식장 예약부터 허니문까지 웨딩서비스

- 1 호텔 예식장 상담예약
- 2 드레스 헤어&메이크업 스튜디오 앨범촬영 및 본식진행
- 3 혼수 예단 예물 예복 스킨케어 허니문 등 혼수 전문
- 4 소규모웨딩 하우스웨딩등 테마웨딩 진행 전문
- 5 결혼기념일 리마인드 웨딩 전문

웨딩상담 02-542-2340

홈페이지방문을 환영합니다 www.bestwedding.net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68-9(청담역) 대표이사 정태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45기, 사무국장)



업계최초 ISO 9001 웨딩서비스 인증업체



추천 도서

내일의 부 1: 알파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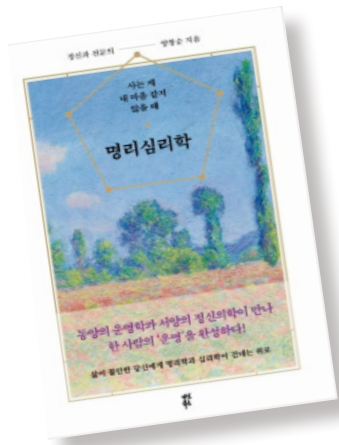
조던 김장섭 저, 트러스트북스



〈내일의 부 - 알파편〉은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 자신의 투자 노하우를 풀어낸 방대한 자료를 담은 책이다. 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 발전을 이룩할 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에 주목한다. 추세적으로 세계화가 진행될 수록 글로벌 기업만이 살아남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대도시에서 본사를 두고 생산공장은 생산비용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일자리는 대도시나 신흥국 위주로 발생하며, 그중 핵심 일자리는 역시 대도시에서 생기는 것이다.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을 반영하듯 부동산도 비슷한 길을 걷는다. 저자는 향후 금리는 낮아지면서 투자는 실물자산인 부동산과 주식에 해야하며, 부동산은 무조건 강남이나 서울 역세권 중 뜨는 곳, 지방은 부촌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진보에 따라서 중산층은 앞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도 내다 본다. 기술혁명이 발생으로 인하여 기존 중산층을 형성하던 제조업 종사자들이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의 경우 10여년 전의 금융위기 고점에 비해 거의 오르지 않았고, 국가적 수준의 생산성 향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이 유럽, 일본의 디플레이션 전철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DT(Data Technology)시대에 빅데이터 관련 클라우드 산업에 속해 있는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국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제 추세와 투자에 대한 저자의 분석 외에도, 시기별 투자자의 대응법을 저자는 매뉴얼을 통해 소개하기 때문에 투자에 입문하거나 이와 관련된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명리심리학

양창순 저, 다산북스



의학박사이자 주역박사인 저자는 다층적이고 복잡한 구조로 얹혀있는 인간의 심리는 정신의학만으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며 책을 쓴 동기를 밝혔다. 과거 단순한 구조의 사회에 비해 여러가지 이해관계로 얽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안은 질병처럼 다가온다. 극심한 불안감에 병원에 찾아가 약을 처방받기도 하고, 몇몇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안감을 저자는 현재 시점에서 자신이 느끼는 부족함, 결핍에서 온다고 한다. 자신이 이전에 실수한 일들이 현재 시점까지 작용하여 앞으로 다가올 본인의 상황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극도의 불안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명리학은 인간은 원래 결핍이 있는 상황임을 자각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를 저자는 '수용의 학문'이라고 이름 붙인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수용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흘러가는데로 관망하는 의미가 아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당장 본인이 해야할 일을 하며 더 나은 내일을 그리라는 의미이다. 어쩌면 현대인의 불안감은 모든 순간에 대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의 후반부에는 오행을 설명하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지향하도록 권유한다. 정신의학이 자기설계의 기초를 닦는다면, 명리학은 기초 위에 입체적인 형태를 구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항상 무언가를 쫓아 살기 급급했던 현대인들에게 결핍은 인간이기에 나타나는 것이고 본인의 잠재능력을 발견하는 노력을 부단히 하여 궁극적으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준다.

식사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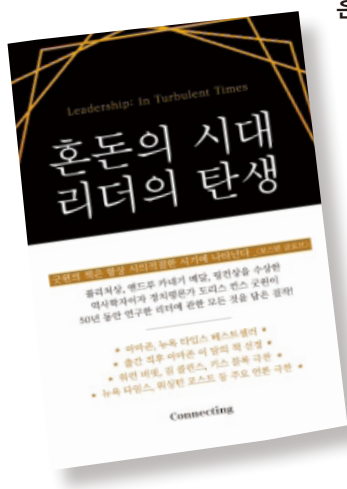
비 윌슨 저, 어크로스



과거 식량이 부족한 시대에 비교하면 먹을 것이 풍족해졌다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의 굶주림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질병은 비만, 고혈압, 당뇨 등 식습관과 관련된 질환들이 많다. 그 이유를 저자는 '만성질환이 배고픔을 대체했다.'고 표현한다. 저장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통조림 음식이 사랑받기 시작했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와 전세계를 압도했다. 사회 각 부문에서 다양성이 중시되고 있지만 식 문화만큼은 점점 획일화 되는 것이다. 물보다 당이 들어간 음료를 더 많이 마시고, 통 곡물보다 정제 밀가루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며 생 과일 대신 정제된 소스, 통조림으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에 기인하고있다. 직장인들의 짧은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이 점차 짧아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책의 서두에 세계는 점점 부유해지는데 우리의 식탁은 점점 가난해진다는 역설적 표현은 우리의 식생활을 돌아보게 한다. 확실히 10년전과 비교했을 때 가족이 식탁에 모여 홈 쿡킹(Home cooking)을 하는 빈도가 낮아지고 외식을 하는 빈도가 잦아지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우리 대한민국의 식탁을 칭찬한다는 점이다. 발효음식(김치, 장류 등)과 고기를 섭취할 때 상추, 깻잎 등 쌈을 조화롭게 이용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문화도 점차 패스트푸드에 지배되는 양상을 보인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식습관에 대한 일침을 놓는다는 점에서 읽어보길 권하는 책이다.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도리스 컨스 굿윈 저, 커넥팅



이념이나 철학의 기준이 아닌, 내 편과 네 편이 있을 뿐인 혼돈의 시대에 리더가 어떻게 탄생하는 것인지 보여주는 책이다. 저자는 혼란의 시기를 극복한 네 명의 대통령을 선택해 그들의 리더십을 분석했다. 노예제도에 대한 갈등으로 국가가 둘로 쪼개졌을 때 뚜렷한 철학과 공감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에이브러햄 링컨, 산업혁명 이후 미국에 닥친 경제적 위기와 트러스트를 타파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행동하는 리더십을 보여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공황에 고통 받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미국인들에게 활력을 되찾아준 프랭클린 루스벨트, 그리고 입법부와 타협하며 '위대한 사회'의 기초를 놓은 린든 존슨이 그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을 찾다보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켰고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그들의 리더로서의 자질 형성과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은 그들이 정치에 입문하던 시기의 야망과 리더십의 자각부터 역경과 성장, 백악관에 입성하고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 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의 해답을 조금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명의 걸출한 미국 대통령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치적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독자라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삶의 교훈을 얻는 방식으로 접근하길 추천한다. 나에게 그들에게 배운 교훈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여하튼 무엇이든 시도해 봅시다."가 될 것이다.

〈툴루즈 로트렉 展〉- 현대 포스터의 선구자 역할을 한 작품들 접할 수 있어

미술작품이 대중 소비를 위해 제작되고 활용되는 최초의 계기가 되는 31점의 포스터

후기인상주의 화가이자 현대 그래픽 아트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의 전시회가 2020년 1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96일)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툴루즈 로트렉 전은 국내에서 선보이는 로트렉의 첫번째 단독전으로, 그리스 아테네에 위치한 헤라클레이돈 미술관(Herakleidon Museum)이 소장하고 있는 15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전시작품 모두가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작품들이다.

현대 포스터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툴루즈 로트렉은 19세기 후반, 예술의 거리 몽마르트와 밤 문화의 상징 물랭 루즈 등을 무대로 파리 보헤미안의 라이프 스타일을 날카롭게 그려낸 프랑스 화가이다.

이번 전시회에 선보이는 포스터, 석판화, 드로잉, 스케치, 일러스트 및 수채화들과 로트렉의 사진 및 영상, 이 시대의 생활용품 등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을 19세기말 생동감 넘치는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과 물랭 루즈로 안내해 줄 것이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들 중, 〈제인 아브릴 Jane Avril, 1893〉, 〈아리스티드 브뤼앙 Aristide Bruant in his Cabaret, 1893〉 등 포스터 작품들과 〈배에서 만난 여인 The Passanger from Cabin 54, 1895〉 등 석판화 작품들, 연필과 펜으로 그린 스케치 작품들, 〈르 리르(Le Rire)〉, 〈라 레뷰 블랑슈(La Revue Blanche in 1895)〉 등 잡지에 게재된 그래픽과 풍자 일러스트 등은 화가 툴루즈 로트렉을 대표하는 이미지이자, 19세기 말 파리 벨 에포크(아름다운 시대, La Belle poque)의 상징들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로트렉의 미술작품 뿐만 아니라 로트렉의 드라마틱한 일생을 소개하는 영상과 미디어 아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그의 일러스트 등을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으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는 2007년부터 그리스와 미국, 이탈리아 등지에서 순회 전시 중이며, 이번 서울 전시회는 14번째 전시이다.

툴루즈 로트렉은 그가 주로 활동했던 프랑스 파리나 19세기말의 시대를 넘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가다. 37년의 짧은 생애동안 5,000여점의 작품을 남긴 로트렉은 몽마르트의 작은 거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가이기도 하다.

전시회 : 툴루즈 로트렉 展 물랭 루즈의 작은 거인

장소 :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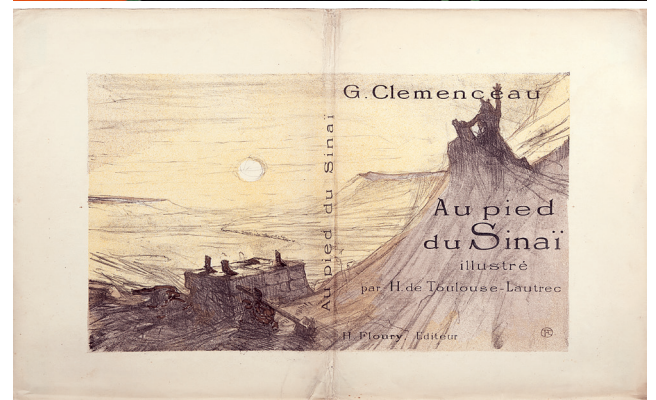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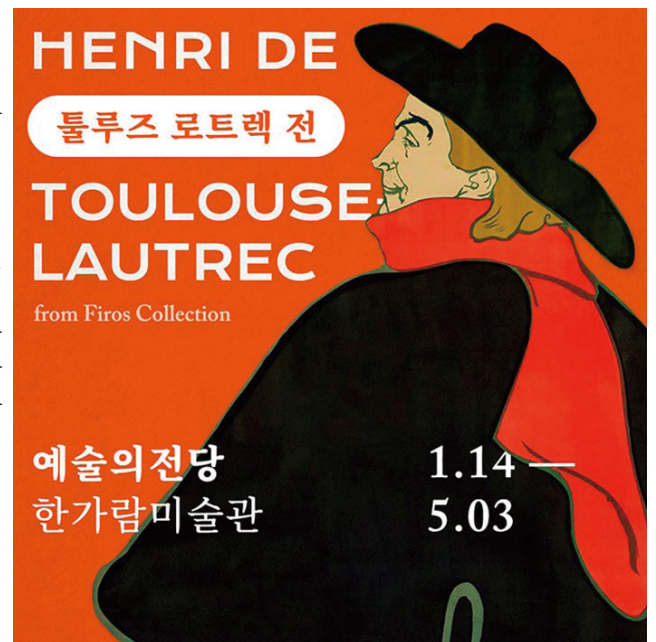
문의 : 02-543-7770

기간 : 2020년 1월 14일(화) ~ 2020년 5월 3일(일)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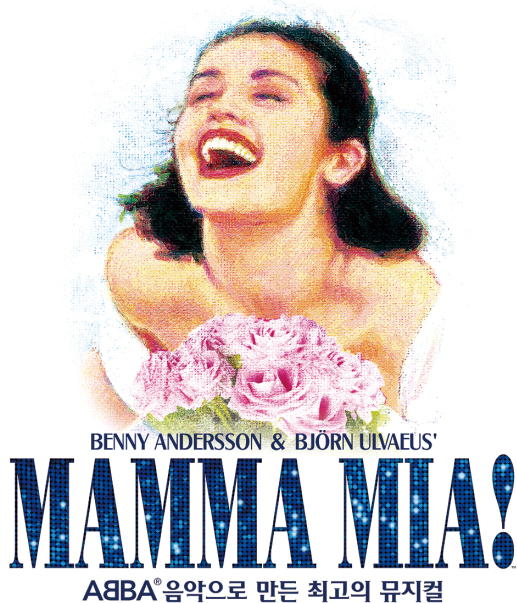
(요일에 따라 변동 가능)

사진 및 자료 제공 : 메이드인뷰



Encore 맘마미아! - 디큐브아트센터에 계획된 두 달간의 앵콜 공연

당신의 인생이 빛나는 순간!
뮤지컬 맘마미아!



2020.3.8-5.31 디큐브아트센터

주최 SBS 후원 선서컴퍼니

지난해 7월 LG아트센터 공연에서 객석 점유율 95%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던 〈맘마미아!〉가 9월부터 시작된 긴 지역공연을 거쳐, 오는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 두 달간 디큐브아트센터에서 앵콜 공연을 갖는다.

〈2020년, 더 완벽해졌다! 긴 호흡을 함께 한 최고의 배우들이 선사하는 절정의 앙상블!〉

최정원, 신영숙, 남경주, 김정민 이현우, 홍지민, 박준면, 루나 등 2019년 1월 오디션을 거쳐 구성된 뮤지컬 〈맘마미아!〉 팀은 지난 7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15개 지역을 순회하며 180회 가까운 공연을 이어왔다. 연습부터 시작하여 10개월 넘게 이어진 이들의 호흡은 뮤지컬 전용극장 디큐브아트센터에서 다시 시작하는 〈맘마미아!〉 앵콜 공연을 통해 절정에 이를 것이며, 최고의 앙상블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하게 될 것이다.

〈200만 관객 돌파 신화를 2,000회 공연 기록으로 이어가는 뮤지컬, 맘마미아!〉

2019년은 뮤지컬 〈맘마미아!〉에게 무척이나 특별한 해였다. 1999년 4월 6일 런던 프린스 에드워드 극장에서 초연된 뮤지컬 〈맘마미아!〉가 20주년을 맞은 해이기도 했으며, 대한민국 공연은 15주년을 맞이했다. 또한, 2019년 8월 22일 공연에서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뮤지컬 역사상 최단기간 최다 관객을 동원한 뮤지컬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현재까지 누적 공연 횟수 1,791회를 달성하고 있는 뮤지컬 〈맘마미아!〉는 이제 2,000회 공연이라는 대 기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단일 배역으로는 최초, 최단기간 1,000회 공연 돌파한 '도나' 역의 최정원〉

또한, 2007년 주인공 '도나' 역으로 〈맘마미아!〉에 합류한 이후 13년째 이 작품과 함께하고 있는 배우 최정원은 지난 12월 8일 대구 공연에서 개인통산 1,000회 공연을 돌파했다. 특히 이 기록은 단일 배역으로 한국 뮤지컬 역사상 최장기간, 최장 횟수 공연한 기록으로 더욱 뜻깊다. 특히 최정원 배우는 '도나' 역이 난이도가 높은 아바의 음악을 13곡 소화해야하는 주인공이며, 연기와 춤이 어우러진 난이도가 높은 배역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공연을 수행하지 못한 전력이 없어 더욱 대단하다 할 수 있다. 이는 최정원 배우의 철저한 자기 관리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로 한국 뮤지컬 배우들의 귀감이 될 만하다.

이렇게 뮤지컬 〈맘마미아!〉가 오랜 시간 뜨거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중·장년층의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아바의 음악' 이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절묘하게 어우러진 뮤지컬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연 관람층의 불모지였던 중·장년 관객을 공연장으로 유입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는 공연으로서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서 사랑받으며, 한국 공연 시장 확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뮤지컬 : 〈맘마미아〉

문의 : 신시컴퍼니 (02-577-1987)

기간 : 2020년 4월 7일(화) ~ 2020년 5월 31일(일)

사진 및 자료 제공 : 신시컴퍼니

석사과정 신입생 명단 (제65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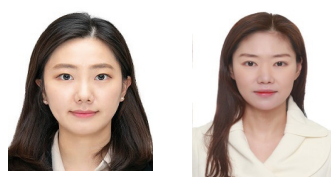
국제관계학과



김나연 김명진 배아름



신명근 이강철 이서현



조아라 조아림

글로벌정치학과



김용태 김윤수

글로벌정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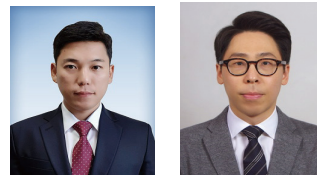


박수빈 박태원 안치문

도시및지방행정학과



이성준 강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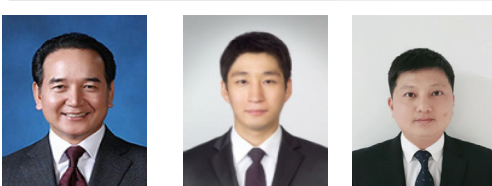


김도현 박상우 박정규



배기덕 송재백

도시및지방행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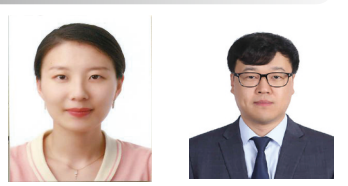
송춘호 염태진 이송주



이영훈 이종한



정소영 최창주



권여진 김선범

경제정책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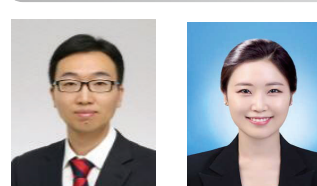
경제정책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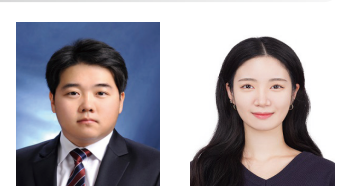
김성용 김영길 김하은



박함윗 송화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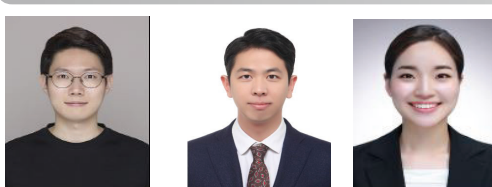
이시은 김남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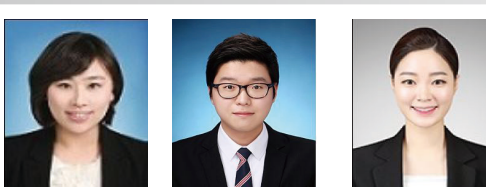
김윤이 박남재 박소현

데이터통계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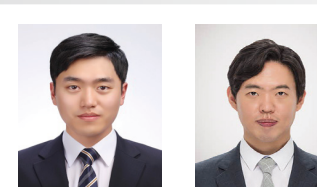
데이터통계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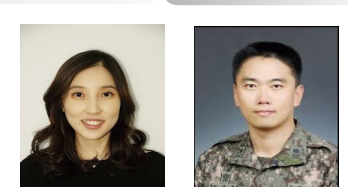
성제동 오도경 유재은



윤디은 윤성원



윤하연 이승환



임우열 천지연 김석환

감사행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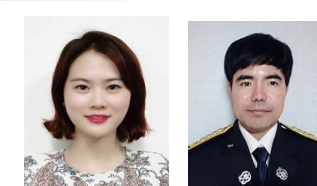
감사행정학과



남은철 서성일 윤서영



최영희 강영구



이용선 이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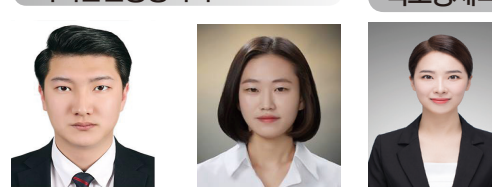


강인덕 김동은 유세화

조세재정학과

사회안전행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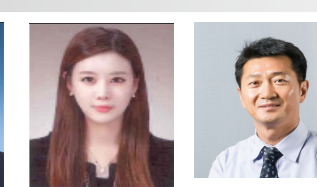
사회안전행정학과



윤성찬 이소향 김수민



문성혜 박대진 박현균



서현아 손종천



임성환

국토경제학과



최고위정책과정 신입생 명단 (제66기)



김민호
KB자산운용
본부장



김은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동부분부 경영인사처장



남현임
주식회사 씨비피
수석컨설턴트



노승환
(주)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류진형
인천국제공항공사
실장



변기효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관리처장



성기석
前 농협중앙회
단장



신동일
한국재난안전정책개발연구원
감사



신성일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양동훈
한국가스공사
처장



유창현
스케치커뮤니케이션
대표



이상근
한전KPS
부장



이성기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이슬기
한국방송공사 KBS
사원



이주언
주식회사 동곡기정
CEO



이형락
울산항만공사
실장



이희복
(주)주영종합건설
사장



임미영
(주)한국경영컨설팅
이사



임종삼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기획관리실장



임태형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처장



장용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



장종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전수옥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부장



지현재
솔로몬엔지니어링
부사장



차상훈
한국공항공사
실장

원우님들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60대 총학생회 임원 조직도

“함께 그리는 제60대 총학생회”

